

해남반도 백포만일대 취락경관에 대한 시론

- 청동기시대를 중심으로 -

김진영 역사문화플랫폼연구소 센터장

kjy7521@hanmail.net

국문초록

해남반도 백포만일대의 고고학적 성과는 고대사회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였으나, 선사시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청동기시대 취락 경관을 고찰하였다. 백포만일대는 지리적으로 내륙의 한계선이 확인되고, 문화적으로도 한계선이 나타난다. 백포만일대에서 황산리 분토취락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조사된 청동기시대 취락이지만, 일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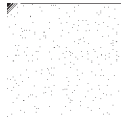
백포만일대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탐진강유역과 영산강유역에서 확산되었다. 취락 밀도분포는 지식묘 분포밀도와 대응할 것이고, 전남지역 취락유적을 통해 확률을 기반으로 소촌-중촌-대촌으로 구분하고, 10기 미만은 소촌으로, 40기 이상은 대촌으로 설정하였다. 전남지역에서 84% 정도가 소촌이고, 대촌은 3% 정도이고, 중촌은 지역별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취락의 단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위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황산리 분토취락은 주거군과 무덤군이 공존하고, 2~4기의 주거지가 개별주거군을 이루며, 부속건물이 딸려 있는 3개의 개별주거군으로 구성되었다. 개별주거군들은 혈연들의 복합공동체들이고, 농경을 기반으로 구산천일원에서 조망권, 이동, 생태전략적 측면에서 뛰어난 입지를 갖는 취락경관을 이루었다.

백포만일대 취락경관은 황산리 분토취락의 양상과 유물산포지 등의 분포로 보았을 때 현산천과 구산천 주변의 구릉이나 사면부에 대부분 소촌단위로 산재하여 분포하고, 황산리 분토취락은 구산천일원의 중촌취락의 경관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취락들은 농경을 기반으로 가족공동체가 하천과 산지, 바다에서 다양한 야생자원을 획득하는 자급자족형의 안정화된 마을들이 경관을 이루었다고 보았다.

주제어 백포만일대, 청동기시대, 취락경관, 촌, 자급자족형

투고일자 2022. 6. 29. | 심사일자 2023. 7. 31. | 게재확정일자 2023. 8. 16.





I. 머리말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는 취락분포·편년·변천(김규정 2000·2013·2021; 김승옥 2006; 홍밖음 2000; 정다운 2015; 김문국 2010), 주거구조(신상효·천득염 2007; 신상효 2007; 강동석 2018), 생업경제(김민구·권경숙 2010; 권경숙 2011; 박서현 2016; 이종철 2017) 양상 및 문화유형(이종철 2002; 황재훈 2007·2009; 조정철 2015; 천선행 2016; 이재연 2021; 노양지 2021) 등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사회변동의 제양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적의 공간분포 등을 통한 경관에 대한 병렬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경관에 대한 관심은 연구방법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 고고학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급증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형식학적 방법 등에 한계에 부딪혔고, 다양한 자료적 가능성을 해석하고자 지리학에서 차용한 경관을 적용하였다. 고고학에서 경관은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표현된 모든 현상이 가미된 문화적 경관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고, 특히 하나의 취락유적과 취락 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의 결과로 보면서 남겨진 경작지를 비롯하여 각종 시설물들이 주변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기능하였는가는 경관을 파악하는 기본요소로 이해하였다(이홍종 2003: 114~115). 자연환경에 고고자료가 분포하는 공간이 단순한 수동적 공간이 아니며, 인간활동의 직간접적인 경험과 긴밀하게 관련된 장소임을 포괄하고 있다.

이 글은 해남반도 백포만일대 취락 경관을 고찰하기 위한 일환이며,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백포만일대에서 축적된 자료는 제한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청동기시대 취락이 갖는 일반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백포만은 한반도 서남부 끝자락에 위치하며, 내륙에서 연결되는 자연지리적 한계선이 형성된 곳으로 지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한계선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한 원삼국시대 이후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선사시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과 백포만일대의 통시적 경관에 접근해 보기 위한 선행적 연구로서 청동기시대 취락 경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II. 유적의 분포와 특징

백포만일대는 한반도 최남단 서남해안 가장자리인 해남반도에 위치하며, 해남반도의 고고학적 양상을 대표하는 곳이다.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는 화산면 안호리와 현산면 백포리와 초호리, 송지면 금강리와 군곡리와 가차리 일원에 해당한다. 지리적 위치는 북위 34° 동위 126°이고, 서해와 남해가 연결되는 지점이다. 호남정맥의 지맥이 영암군 국사봉(해발 615m)에서 해남군 사자봉(152m)까지 뺏어내리며, 해남반도의 척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해남반도를 서부와 동부로 가르기도 한다. 백포만일대는 해남반도의 서부에 속하며, 북-동-남쪽으로는 망부산과 가공산 등 해발 200~300m 내외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서쪽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다. 내륙적으로 폐쇄적인 환경은 취락경관의 전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백포만일대에서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 유적은 무덤유적과 주거유적 등이 있고,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남지역에서 조사된 지석묘와 유물산포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해남지역에서 지석묘는 118개군 1,302기 정도가 확인되었고, 전남지역 지석묘의 4.6% 정도를 차지하며, 백포만일대에는 해남지역 지석묘의 34% 정도가 분포한다.

해남반도권 지석묘의 분포현황은 자연지형과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14개의 소지구로 구분하고, 분포밀도를 통해 5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백포만일대는 현산-송지(북)지구 일부에 해당하고, 현산-송지(북)지구 면적은 113.02km²이고, 분포밀도가 높아 해남반도권 지석

표 1 해남군 지석묘 현황(조진선 2020·2022)

읍면	조사현황					종합			비고
	해남군의 문화유적 (1989)	문화유적분포지도 (2002)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기타	대한문화재연구원 (2020)	최다 군집수	최다 기수	평균 기수	
해남읍	30	55	30	7	47	7	69	9.9	
삼산면	43	60	49	0	49	11	72	6.5	
화산면	141	142	127	0	127	7	144	20.6	
현산면	298	373	308	0	316	18	373	20.7	
송지면	28	63	31	0	29	9	64	7.1	
북평면	0	0	0	0	0	0	0	0	
북일면	27	20	32	0	32	1	32	3.2	
옥천면	160	167	140	2	124	21	201	9.6	
계곡면	60	57	36	0	36	6	61	10.2	
마산면	122	134	108	0	95	17	152	8.9	
황산면	9	10	10	0	9	2	10	5.0	
산이면	74	74	41	0	38	9	76	8.4	
문내면	23	19	27	0	26	6	31	5.2	
화원면	7	10	11	0	10	4	17	4.3	
합계	1,022	1,184	950	9	938	118	1,302	11	

묘의 중심 분포 축을 이루고 있다. 해남반도의 지석묘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확산되는데, 백포만일대의 남단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조진선 2022: 42~46).

해남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지석묘는 고현리지석묘 군과 군곡리 군안지석묘 가군, 분토지석묘 등이고, 대부분 유실되었거나 하부구조만 남아 있다. 유물은 매장시설 내에서 출토된 사례가 없고, 주변에서 우각형 파수, 무문토기편, 소형대부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편, 경질무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어 기원전 3세기경부터 기원전후에 집중적으로 조영되었고, 고현리 2호 묘와 군곡리 군안 지석묘 가군 등은 기원후 1~2세기까지 조영되었다고 보았다(김진영 2021: 203; 조진선 2022: 61). 황산리 분토 지석묘의 상석 하부에서는 판석제와 할석들이 혼재되어 묘역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무문토기저부편이 출토되었다. 최근 읍호리 고분군 조사와 관련하여 읍호리 입석을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석묘 8기가 조사되었고, 매장시설이 반지하식이고, 묘역시설이 있는 묘역식지석묘에 해당한다.

유물산포지는 해남지역에서 100개소 정도가 확인되었다. 백포만일대에서는 10여 개소가 확인되어 해남 지역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비율적으로 지석묘 비율과 대응될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된 취락유적

은 현재까지 황산리 분토유적 등이다. 황산리 분토유적은 주거지 15기와 수혈 10기, 구상유구, 지석묘 1기와 석관묘 3기, 석곽묘 1기 등이 조사되었고, 구순각목문편, 구순각목공렬문편, 이단경식석축, 석도 등이 출토되었으며, 전기 후반경부터 송국리문화 단계까지로 편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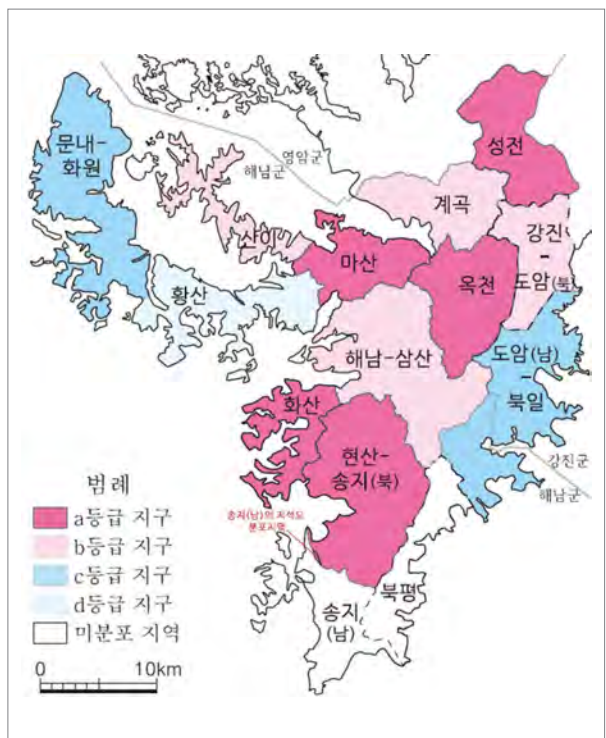


그림 1 해남반도권 지석묘의 지구별 분포 등급(조진선 2022).



표 2 백포만일대 발굴조사 현황

유적명	무덤	주거지	수혈	기타	출토유물	비고
고현리 지석묘	지석묘 1기, 석관묘 1기				소형대부토기, 우각형파수, 무문토기편	목포대학교박물관, 1998
황산리분토유적	지석묘 1기, 석관묘 3기, 석곽묘 1기	15기	10기	구상유구 8기	무문토기편, 석검, 공렬문토기편, 석부, 석촉 등	전남문화재연구원, 2009
군곡리 군안 지석묘 가군	지석묘 2기, 석관묘 1기				삼각형점토대토기편, 경질무문토기편, 석도편, 지석 등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읍호리 입석	지석묘 8기			선돌	무문토기 등	대한문화재연구원, 2023

Ⅲ. 취락의 구성 및 유입

1. 취락 구성

백포만일대에서 인간활동이 확인되는 시기는 구석기시대부터이다. 군곡리유적에서 출토된 여러면석기를 통해서 구석기 중기 이전의 모습이 확인되며, 신석기시대 후기의 봉계리식토기편이 확인되었고, 두모패총에서도 토기편이 확인되어 채집과 수렵, 패류 등을 식량자원으로 이용한 정주생활의 일면이 확인되었다(김진영 2022: 107). 지석묘 등을 통해서 청동기시대 유적의 증가와 함께 인간활동의 증가가 확인된다. 청동기시대에는 본격적인 수도작 확산으로 해양자원 이용이 감소하는 생태경제 변화를 가져왔고, 농경문화의 확산으로 농경지와의 접근성이 중요해져 충적지 인근 구릉을 선호했을 것으로 보았다(김승욱 2006: 30). 이러한 현상들은 구산천을 따라 안쪽 구릉지대에 자리한 황산리 분토취락과 유물산포지들의 입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황산리 분토취락은 야산에서 길다랗게 뻗어내린 독립된 구릉에 입지한다. 해발 14~23m 사이의 능선부와 남서쪽 사면부에서 160m×80m 정도의 범위가 조사되었고, 주거지 15기와 수혈 10기, 지석묘 1기와 석관묘 3기, 석곽묘 1기, 구상유구 8기 등이 확인되었다. 그 주변은 구산천을 중심으로 일정범위로 구분되는 작

은 분지를 이루고 있다.

주거지는 송국리형주거지이고, 평면형태는 방형과 원형이다¹. 장축방향은 능선부에 조성된 주거지는 북동-남서방향이고, 사면부에 조성된 주거지는 북서-남동방향에 가까워 지형적인 요인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주거지들은 경사면 아래쪽이 유실되었다. 면적을 추정해 보면 10㎡ 이하의 소형(11호), 10~30㎡의 중형(2호~4호·12호·13호), 30㎡이상의 대형(8호), 40㎡이상의 초대형(15호)으로 구분되고, 전남지역 주거지의 평균면적과 유사하다. 내부시설은 타원형구덩이, 주공, 4주공, 벽구 등이 확인되었다. 방사성탄소연대값은 1호 주거지에서 2430±50BP가 측정되었다.

무덤은 상석 1기와 석관형(2기)과 석곽형(1기)의 매장시설이 확인되었고, 매장시설은 지석묘의 하부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이동되거나 멸실된 상석의 하부구조일 가능성이 있다². 상석 아래 묘역시설에서는 무문토기 저부편이 출토되었고, 혼재된 할석들로 보아서 매장시설은 석곽형으로 추정된다. 최근 읍호리입석 주변



그림 2 읍호리 입석과 묘역지석묘의 분포.

1 원형계 중 일부는 원삼국시대 주거지로 밝혀졌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2 지석묘가 위치한 곳 위쪽으로 소로가 개설되었고 주변 지형 훼손이 심하여 이 과정에서 훼손·멸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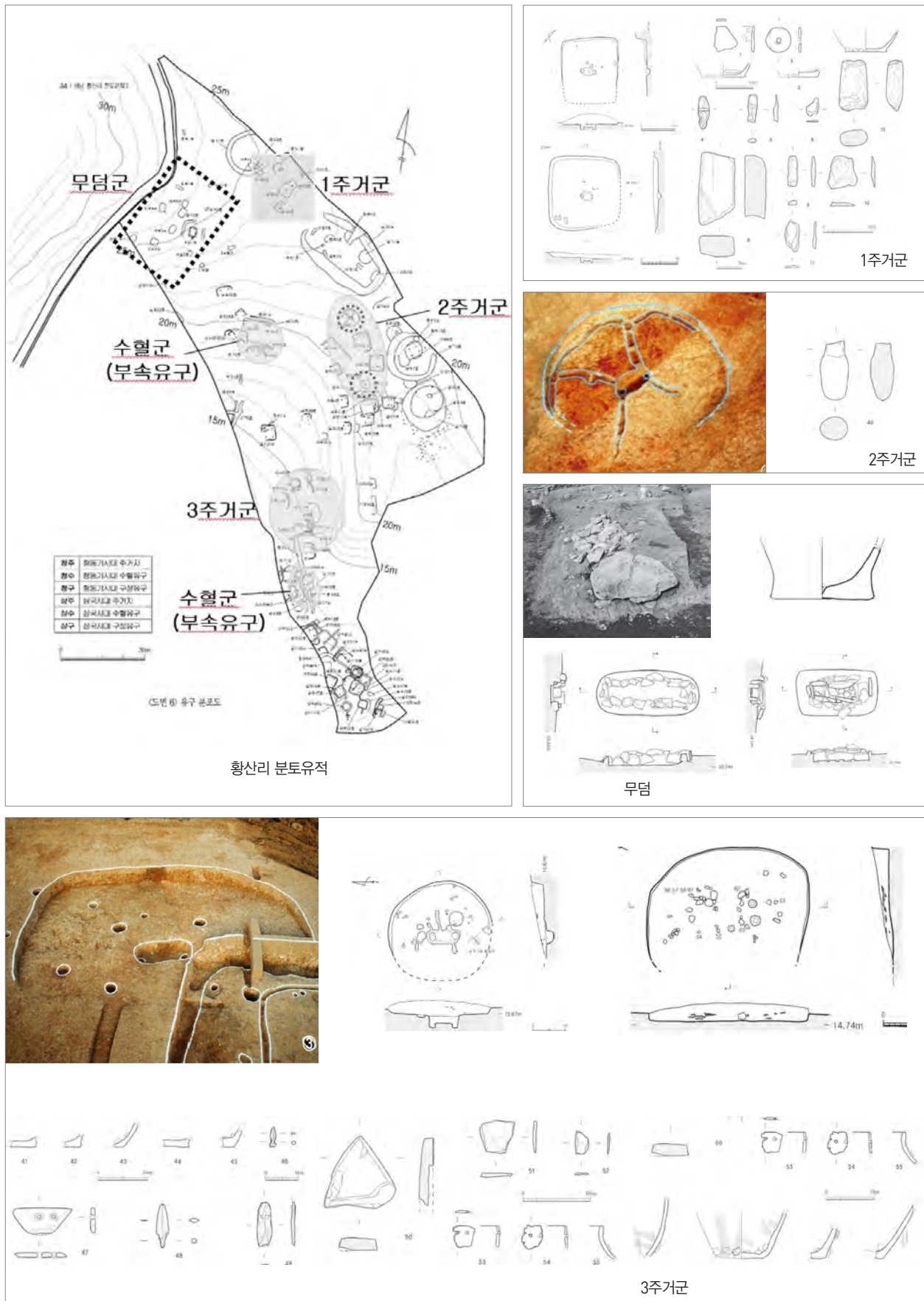


그림 3 황산리 분토 취락의 구성.



에서 확인된 묘역식지석묘와 외형상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무문토기 저부편은 저부에서 동체로 이어지는 형태가 15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저부편과 유사하다.

수혈은 평면형태가 원형계와 방형계이고, 내부에서는 공렬문토기편, 무문토기편, 석도, 석기 등이 출토되었고, 주거지 출토유물과 유사하다. 규모는 길이 95~215cm, 너비 60~226cm 이상으로 주거지보다 작은 면적으로 추정된다. 구상유구는 사면부에서 확인되었고, 분포상으로 보아서 주거지와 관련성은 찾기 어렵다.

황산리 분토취락은 동 일 구릉에서 주거공간과 무덤공간이 영역을 달리하며 분포한다. 주거지는 5기 미만이 군집된 분포를 이루고, 군집 간에 40~5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3개의 주거군으로 나누어져 분포한다. 1주거군은 구릉 능선 정상부에 입지한 1호~4호 주거지 4기가 군집되어 구성되었고, 방형의 송국리형주거지이며, 공렬문토기문화가 수용된 혼암리형이다. 2주거군은 구릉 능선부에 입지한 8호, (10호), 11호 주거지가 해당하고,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이며, 경사면 아래쪽으로 30m 정도 떨어져 수혈 4기가 조성되었다. 3주거군은 해발 15m 정도의 구릉 사면부에 입지한 방형의 14호 주거지와 원형의 13호·15호 주거지로 구성되며, 수혈 3기가 인접하여 조성되었다. 14호 주거지는 역삼동식토기문화를 수용하였다. 15호 주거지는 면적이 40㎡ 이상으로 추정되는 초대형이며, 희소성을 갖는 4주식의 구조로 전남지역에서도 확인되는 사례가 드문 구조이다. 유물은 장방형석도와 유구석부, 석촉, 미완성석재편 등 수량 면에서도 다른 주거지보다 우세하며, 내부면적 확대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확인되고, 구조적 특징과 규모 등의 희소성으로 보아서 황산리 분토취락에서 대표성을 띠는 주거지로 볼 수 있다.

수혈은 3기 내외가 군집을 이루고 2개의 군집으로 구성되었고, 주거군보다 경사면 아래에 자리하는데, 농경지와 주거군 사이에 저장시설이나 창고 등과 같은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저장기능의 수혈은 깊이 차이를 통해서 단기저장용과 장기저장용으로 구분

하였고, 소형에 깊이가 얇은 것을 단기저장용으로 보았다(우정연 2014: 118~121). 영산강유역의 저장공 및 주변에서 확인되는 수혈은 대부분 깊이가 20cm 내외로 단기저장의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이재언 2021: 29). 황산리 분토취락의 1주거군과 2주거군은 농경지에서 주거군으로 올라오는 지점에 부속유구를 설치하여 부속유구들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고, 3주거군은 단독의 부속유구들을 갖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황산리 분토취락의 수혈은 소형이고 깊이가 20cm 내외로 수확물을 단기저장하거나 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추정된다. 산과 들뿐만 아니라 바다가 인접해 있는 생태환경이 풍요로운 식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단기저장용 수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산리 분토취락은 2~4기의 주거지가 개별주거군을 이루고, 동일한 구릉상에 개별주거군 3개가 취락을 구성하고, 개별주거군에는 저장시설이나 창고 등의 부속건물들이 딸려 있고, 근접하여 무덤군을 조성하였다.

2. 유입

황산리 분토취락은 송국리문화를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주거지에서는 탐진강유역과 영산강유역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탐진강유역의 주거지는 장흥 신평유적에서 원형과 방형의 비율이 7.5:2.5의 비율로 원형이 압도적이고, 장흥 갈두유적은 원형과 방형의 비율이 3.4:6.6으로 방형계가 압도적으로 남해안지역에서 주거지의 평면형태 변화는 일률적이지 않다고 보았다(김규정 2013: 99~100). 영산강유역에서는 원형이 우세하게 확인되지만, 영암 금계리유적에서는 원형과 방형이 2:8 정도로 방형이 압도적이다. 영암 금계리유적과 탐진강유역의 주거지에서 타원형구덩이와 기둥구멍은 외곽선에 맞닿아 기둥구멍이 설치된 점과 타원형구덩이에 비해서 큰 점 등에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황산리 분토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황산리 분토유적에서는 영산강중류권인 나주지역 송국리형주

거지의 타원형구덩이와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백포만일대는 주변에서 지역화된 송국리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주거지는 영산강유역의 영향이, 지석묘는 탐진강유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남지역의 지석묘는 분포밀도와 등급선 연결을 통하여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탐진강 상류지역에서 확산되어 등장한 것으로 보았다(조진선 2022: 58~61). 최근 읍호리에서 조사된 지석묘는 매장시설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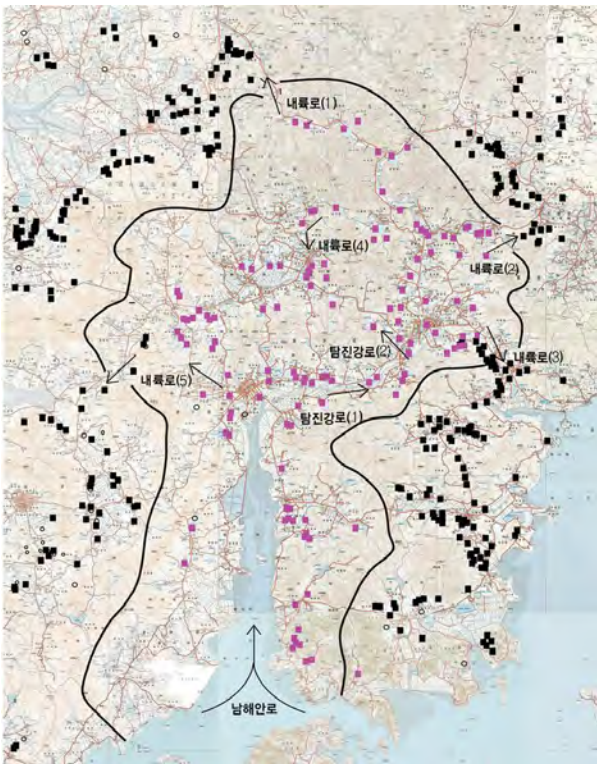


그림 4 해남반도권 지석묘의 분포밀도 등급선(조진선 2022: 59) 및 탐진강유역권 지석묘 분포와 교통로(김진영 2013).

횡구식이 확인되는 점, 주형지석 등은 개석식지석묘와 기반식지석묘가 혼합된 복합형지석묘에 해당하고, 탐진강유역의 장흥 신평과 갈두 지석묘, 단산리 외검지석묘 등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매장시설의 위치는 읍호리 묘역식지석묘가 지상화되고 상석이 판상화된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복합형지석묘는 영산강유역의 영암 엄길리지석묘에서 주형지석 등이 확인되었고, 서남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유입 과정은 단선적이지 않으며, 영산강유역과의 관계도 배제할 수 없다.

탐진강유역 지석묘 분포에 의거하여서 내륙로, 탐진강로, 남해안로의 교통로를 상정하고, 내륙로는 세분하였으며, 그 길은 하천, 저지대, 고갯길 등을 이용하였을 것이고, 상시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김진영 2013: 142~151). 탐진강유역에서는 내륙로(1)과 내륙로(5)를 따라 유입되었고, 영산강유역에서도 내륙로로 이어지는 유적의 분포를 따라 유입되었을 것이며, 유입경로는 취락 경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백포만일대 유적의 분포밀도 등급선은 지석묘와 유물산포지(취락)의 상관관계를 갖고 서로 대응하고, a급의 지석묘 밀도분포와 대응하는 취락들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IV. 취락 경관

1. 황산리 분토취락의 경관

황산리 분토취락은 주변이 산악지로 연결되어 산림자원의 확보에 용이하고, 구산천을 중심으로 층적지가 펼쳐져 농경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서쪽으로는 구산천이 바다와 직결되어 조수간만에 차에 따라 구산천에 바닷물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해양자원의 획득 또한 용이한 환경이었다. 취락이 입지한 구릉은 독립된 곳으로 구산천 일대의 층적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권을 갖추었고, 현산면 방향과 바다(군곡리)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해당한다. 황산리 분토취락



은 구산천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망권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는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조성되었다.

황산리 분토취락은 2~4기의 주거지로 이루어진 개별주거군 3개와 개별주거군에는 창고나 저장시설 등으로 사용한 부속유구가 딸려 있다. 1주거군과 2주거군은 구릉정상부에 입지하고, 주거군보다 낮은 지점에서 부속유구를 설치하여 공유함으로써 이동과정에서 노동력 상실을 축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주거군은 경사면 하단부에 입지하며, 단독으로 부속유구를 조성하였다. 경사면 하단부 쪽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주거지 분포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구성의 황산리 분토취락 경관은 영국 서섹스 블랙 패치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통해서 복원된 마을 경관과 분포상 유사한 부분이 확인되는데, 황산리 분토취락의 개별주거군의 분포양상과 유사하다. 영국 서섹스 블랙 패치유적에서는 주거지 5동 등이 조사되었고, 주인 아내의 집, 축사, 주인의 집,

가까운 친척 집 등으로 마을경관을 이룬 것으로 해석되었다. 청동기시대 취락 구성은 가족공동체, 세대공동체, 핵가족으로 분류하고, 가족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소형주거지가 군집을 이루며 거주한 집단을 세대공동체로 보았고, 송국리단계에는 4~5인의 핵가족을 구성한 것으로 보았다(안재호 2006: 92~95). 3~6인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핵가족의 주거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일 수 있고, 재검토를 요하는 개념화라고 보기도 하였다(이성주 2012: 9). 황산리 분토 취락은 소형 면적이 대부분으로 구성원별로 별도 공간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일인용 주거임을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핵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즉 황산리 분토취락의 개별주거군이 서섹스 블랙 패치유적의 마을구조와 유사하므로 3개의 개별주거군 3개들이 취락경관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별주거군은 가족공동체에 의해 구성되었고, 3개의 개별주거군은 세대들이 복합된 가족공동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바, 황산리 분토취락은 혈연들의 복합공동체로 구성된 취락경관을 이루었을 것이다. 혈연집단들이 가족단위로 분파하여 동구역 내에 개별주거군을 이루고, 마을에 가까운 곳에 공동의 무덤영역을 이루는 경관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산리 분토취락은 구산천 권역의 조망권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해당하는 독립된 구릉, 다양한 식량자원 획득의 용이성 등과 같은 탁월한 조건을 갖추었다. 이 때문에 분파한 가족공동체가 가시권을 벗어나지 않고, 동일한 구릉상에 독립된 주거공간을 이루며, 생산활동 등에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용기중기 형성한 안정화된 시골 마을의 취락경관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백포만일대 취락의 경관

백포만일대는 호남정맥의 지맥에 의해서 북-동-남쪽 방향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현산천과 구산



그림 5 ① 황산리 분토 청동기시대 취락 경관 복원도, ② 서섹스 블랙 패치유적의 청동기시대 주거 복원도(Drewette 1982; 이성주 2012, 재인용).

천을 중심으로 각각 작은 분지를 이루며, 서남해로 연결되고 있다. 백포만일대의 바다와 구릉 및 산악지대, 하천에는 다양한 야생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하천은 물의 공급과 농경 등 식량의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 주기 때문에 인간활동이 집중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취락을 형성하는데 중심성을 제공해 준다. 해남반도의 경우는 내륙에서 이어지는 지리적 고립성 때문에 청동기시대 유적의 밀집도는 떨어지는 편이지만, 백포만일대는 해남지역에서 유적의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해남반도 내에서는 중심성을 갖는다.

청동기시대에는 수도작 확산으로 해양자원의 이용이 줄어들고 농경사회로의 전환이 인구증가와 확산을 야기하였고, 청동기시대 취락 경관은 생태경제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김준희 2022: 194~197). 도작농경을 영위했던 취락의 입지를 분석하면 그들이 어떠한 농경지를 선호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다. 송국리유형의 취락은 저지대와 인접해 있는 낮은 대지성 구릉 혹은 평야지역의 단구면이나 자연제방상에 입지하고 있다(이홍중 2003·2010: 207). 청동기시대 중기에 주거지 증가현상이 확인되고, 주거지 증가현상은 인구가 증가와 직결된다. 백포만일대에서도 이전 시기에 패총으로 나타나는 해양자원의 이용이 감소하였고, 송국리문화의 취락들이 하천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현상에서 도작문화가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고(그림 6), 당시 취락경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청동기시대 백포만일대의 경관은 지석묘들에 의해서 가시성이 나타난다. 지석묘는 선사시대의 생활권과 교통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로, 대동여지도의 도로망이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진영 2013: 162). 따라서 <그림 6>에서 확인되는 유적분포는 백포만일대의 취락들의 경관을 추



그림 6 백포만일대 주변 환경과 유적 분포.

정하게 한다. 앞서 살펴본 지석묘 분포밀도의 등급선은 취락의 분포밀도와 상응할 가능성이 높고, 해남지역에서 a급의 지석묘 밀도분포를 형성하는 백포만일대에는 이와 대응되는 취락의 분포밀도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유물산포지들이 지석묘군과 인접하여 분포하는 현상에서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이 근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동기시대 취락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이며, 영암 장천리취락, 장흥 신평취락, 나주 운곡동취락, 황산리 분토취락 등에서 확인되었다.

백포만일대 청동기시대 취락들은 어떤 경관 속에서 상호관계를 갖고 있었을까? 전남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취락유적의 주거지 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남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유적은 지금까지 150여 개소가 발굴조사되었다³. 확률을 기반으로 추론하여 보면, 10기 미만이 84% 정도, 11~40기 미만 16% 정도, 40기 이상이 3% 정도를 차지한다. 청동기시대 취락은 대부분 10기 미만의 주거지로 구성된 소규모이고, 분산형으로 산재되는 경관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취락의 구성단위에 적용하면 소촌-중촌-대촌으로 나눌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촌락군들이 형성되었고(이희준 2000: 134), 본격적인 농경사회로의 진입은 대규모 경작지 개발과 농경을 위한 인구의 집중화가 요구되면서 취락의 대규모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김승옥 2006: 30). 일정 공간 내에서 집단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3 김규정(2013)와 이재연(2021)에 제시된 자료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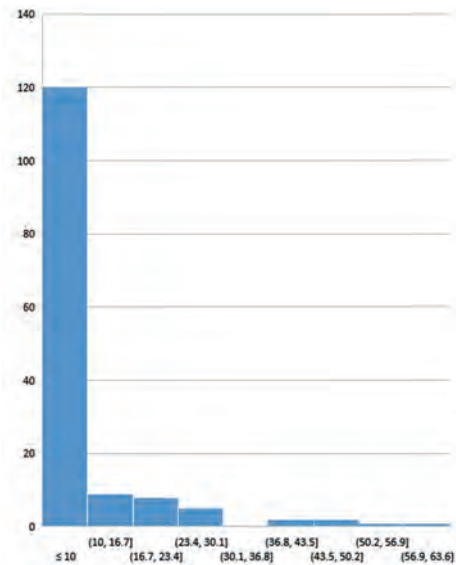


그림 7 청동기시대 취락별 주거지 수 히스토그램.

형성되고, 취락의 구성요소들 통해서 위계를 설정하여 대형취락-중형취락-소형취락(송만영 2006), 최상위 중심지-하위중심지-일반부락(김범철 2005), 거점취락-대취락-소취락(안재호 2006), 상위취락-중위취락-일반취락(이형원 2009), 중핵취락-거점취락-위성취락(배덕환 2014), 중심취락-일반취락-기능취락(김권중 2020) 등으로 분류하였다.

전남지역에서 일정 공간 내에서 집단 간의 네트워크와 위계설정은 나주 장동리, 운곡동, 구기촌와 장흥 신평, 갈두유적 등과 같이 대촌단위의 취락들이 확인된 지역들에서 검토가 용이할 것이다. 취락 규모는

일정 공간(또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이러한 양상이 취락의 위계와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청동기시대 취락 중에 일정한 지역 내에서 공식성을 갖고 관계를 보여주는 유적은 나주 운곡동취락군 등이 있다. 나주 운곡동취락군은 마주보는 3개의 구릉에 기능취락(I 지구)에서 주거지 19기, 운곡동 나취락(II 지구)에서 주거지 50기, 안성취락①(III 지구)에서 주거지 4기 등이 조사되었다. 나주 운곡동취락군은 장기간 영위되면서 대군집을 이루고, 보기 드물게 초기의 철기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확인되며, 인접하여 무덤군들이 확인되었다. 나주 운곡동취락군은 여러 단위취락들이 군집형의 분포를 보이며, 대촌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연결된 전남지역 송국리문화의 중핵지역으로 이해된다.

황산리 분토취락은 조사된 주거지 수는 10기 미만이지만, 백포만일대에서 무덤공간과 부속유구 등으로 구성되었고, 추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락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촌으로 보고자 한다. 백포만일대에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현리 지석묘군이나 군곡리 군안지석묘 등에서 동일한 공간 내에서 주거군들이 조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소촌들이 단층적으로 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주 운곡동취락군의 경우는 일정 공간 내에서 취락 간에 다소 중층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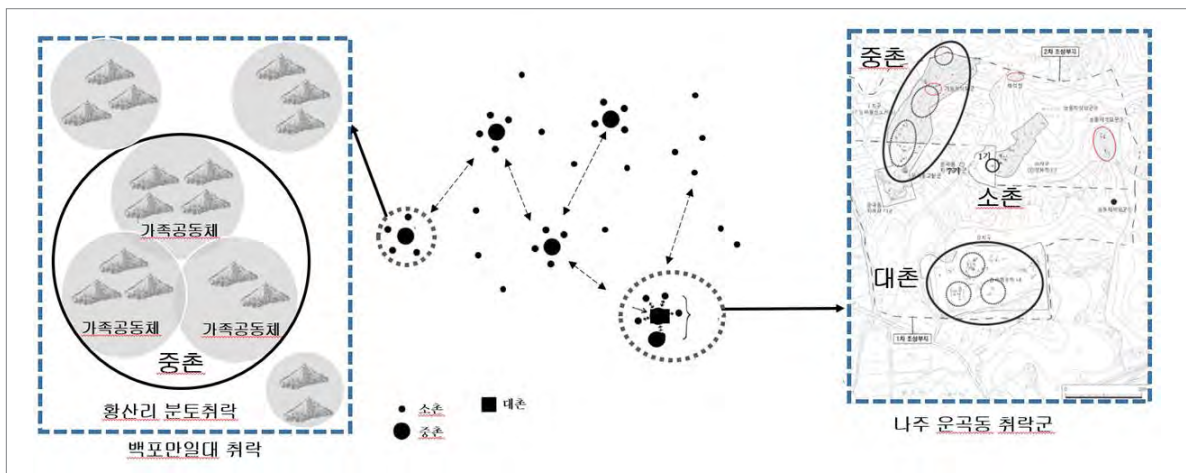


그림 8 백포만일대의 청동기시대 취락 분포 정형.

황산리 분토취락은 백포만일대에서 중촌의 경관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혈연들의 복합공동체들이 중심이 되어 특정한 좁은 범위의 공간에 모여 사는 '집성촌'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포만일대 유물산포지들이 분포하는 입지를 보면, 취락들은 농경지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생존 전략적으로 식량의 다양성을 제공해 주고, 자원획득의 변이를 해결하여 단일자원에 의존하는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였다. 청동기시대에 패총이 쇠퇴하고, 백포만일대의 핵심유적인 군곡리유적에서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서 농경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 곳에 취락의 입지를 선정하였음을 보여준다. 취락(유물산포지)들은 1.5km 내외의 이격거리를 두고 확인되고, 사이 사이에는 지석묘군들이 분포하고 있다. 백포만일대 취락들은 하천 주변 구릉에서 입지하며, 황산리 분토취락과 대동소이한 경관을 가진 소촌들이 취락경관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촌들은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분산되어 산재된 분포양상으로 황산리 분토취락은 구산천일원에서 주변을 아우르는 조망권과 길목에 해당하는 입지 속에서 중촌의 경관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촌들은 산발적인 경관을 이루고, 촌과 촌 사이에는 지석묘(무덤)를 조성하고, 지석묘 축조시에는 협업공동체를 이루며, 공존하였다고 보여진다. 농경을 기반으로 계절에 따라 하천과 산지, 바다에서 다양한 야생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마을 경관이 상상된다.

V. 맺음말

백포만일대는 그동안의 고고학적 성과들로 인하여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 그러나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선사시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청동기시대 취락경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백포만일대는 내륙에서 연결되는

자연지리적 한계선이 지석묘 분포밀도 등을 통해서 문화적으로도 확인되지만, 백포만일대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조사된 황산리 분토취락은 청동기시대 취락의 일반성을 잘 보여준다. 황산리 분토취락은 동일한 구릉에 주거군과 무덤군이 자리하며, 조망권과 생존 전략적으로 탁월한 입지를 갖추었고, 3개의 개별주거군과 부속건물들이 딸려 있는 취락경관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았다. 백포만일대는 도작농경을 기반으로 산, 들, 바다에서 제공되는 식량의 다양성을 통해 단일 식량자원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감소할 수 있는 곳이다.

백포만일대는 해남반도에서 가장 높은 지석묘 분포밀도지역으로 취락 밀도분포는 이와 상응할 것이고, 탐진강유역과 영산강유역에서 확산된 송국리문화와 지석묘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취락분포경관을 살피기 위해서 전남지역에서 조사된 주거지 수를 통한 확률을 기반으로 소촌-중촌-대촌으로 분류하고, 10기 미만의 주거지로 구성된 취락을 하위단위인 소촌으로 보았다. 전남지역 취락들은 대부분 소촌에 해당하고 산재한 분포경관을 이루었을 것이며, 대촌은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었다. 황산리 분토취락은 가족공동체로 이루어진 개별주거군 3개로 구성된 가족공동체들로 혈연들의 복합공동체들이 구성한 중촌이며, 구산천일원에서 안정화된 취락경관을 조성한 것으로 보았다

백포만일대에서 청동기시대 취락들은 하천 주변에서 소촌들이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경관을 이루고, 단층적인 관계 속에서 촌과 촌 사이에는 지석묘(무덤)를 조성하고, 지석묘 축조시에 협업공동체를 이루며, 공존하였다고 보여진다. 촌들은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하천과 산지, 바다에서 다양한 야생자원을 획득하며 생활하는 자급자족형의 안정화된 마을들이 경관을 이루었다고 보았다. 글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황산리 분토취락이 유일하다는 이유로 논리적 비약이 있으나, 백포만일대 청동기시대 취락과 경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시발점 역할을 하였으면 바램이다.



참고문헌

- 강동석, 2018, 「지석묘사회의 취락패턴과 복합화-GIS를 활용한 영산강중류역 취락패턴의 재구성」, 『한국고고학보』 109, 한국고고학회.
- 김규정, 2013,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구 · 권경숙, 2010,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석기조성과 생업경제-호남지역과의 비교-」, 『호남고고학보』 36, 호남고고학회.
- 김문국,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주거지 고찰』,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욱,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 60, 한국고고학회.
- 김준희, 2022,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경관기획과 점유기간」, 『고고학』 21(2), 중부고고학회.
- 김진영, 2013, 「청동기시대 탐진강유역의 문화교류 양상과 교통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역사문화학회.
- 김진영, 2021, 『영산강유역 마한 형성과정 연구』, 학연문화사.
- 김진영, 2022, 「해남 군곡리유적을 중심으로 본 백포만일대 경관」, 『해남 군곡리유적으로 본 고대 향사와 신미국 국제학술대회자료집』, 목포대학교박물관.
- 권경숙, 2011,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석기조성과 생업경제』, 전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노양지, 2021, 「호서 · 호남지역 휴암리유형의 전개양상 검토」, 『한국청동기학보』 29, 한국청동기학회.
- 박서현, 2016,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생업경제-취락과 새업도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3, 호남고고학회.
- 신상호 · 천득연, 2007, 「장흥 신평리 청동기시대 취락의 정주형식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8, 한국주거학회.
- 신상호, 2007, 『한국 서남부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재호, 2006,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철, 2017, 「송국리취락의 생산과 소비양상-개별 주거와 취락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7, 호남고고학회.
- 이종철, 2002, 「호남지역 송국리형 주거문화」, 『한국상고사학보』 36, 한국상고사학회.
- 이재언, 2021,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의 분포양상」, 『호남고고학보』 69, 호남고고학회.
- 이희준, 2000, 「삼한 소국 형성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 『한국고고학보』 43.
- 이홍중, 2003, 「송국리형 취락의 경관적 검토」, 『호서고고학보』 9, 호서고고학회.
- 이홍중, 2010, 「도작문화의 정착과 확산」, 『한국고대의 수전농업과 수리시설』, 서경문화사.
- 이형원, 2014, 「취락과 사회구조」, 『청동기시대의 고고학3 취락』, 서경문화사.
- 우정연, 2014,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저장전략 비교연구-물리적 · 사회적 저장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85, 한국상고사학회.
- 정다운, 2015,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문화의 시공간적 전개양상』, 전북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조진선, 2022, 「해남반도권 지석묘의 등장과 확산과정」, 『호서고고학보』 71, 호서고고학회.
- 천선행, 2016, 「호남지역 전기무문토기문화의 실체와 전개」, 『호서고고학보』 35, 호서고고학회.
- 황재훈, 2009, 「전남지역 선송국리-송국리단계의 인구분포 변동」, 『호남고고학보』 20, 호남고고학회.
- 황재훈, 2015,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 연구 검토-형식 편년과 유형론, 그리고 방사성탄소연대-」, 『고고학』 14(1).
- 홍밭음,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 『호남고고학보』 36, 호남고고학회.

A preliminary study on the village landscape in Baengpo Bay, Haenam Peninsula - Around the Bronze Age -

KIM Jinyoung Director, History&culture platform institute

kjy7521@hanmail.net

Abstract

Much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e Baekpoman area due to the archaeological achievements of the past, but studies on prehistoric times when villages began to form is insufficient, and the Bronze Age village landscape was examined in order to supplement this. In the area of Baekpo Bay, the natural geographical limit connected to the inland was culturally confirmed by the distribution density of dolmens, and the generality of the Bronze Age settlement was confirmed with the Hwangsan-ri settlement. Bunto Village in Hwangsan-ri represents a farming-based village in the Baekpo Bay area, and the residential group and the tomb group are located on the same hill, and it is composed of three individual residential groups, and the village landscape had attached buildings used as warehouses and storage facilities.

In the area of Baekpo Bay, it spread in the Tamjin River basin and the Yeongsan River basin where Songgukri culture and dolmen culture were integrated, and the density distribution of the villages was considered to correspond to the distribution density of dolmens. In order to examine the landscape of village distribution, the classification of Sochon-Jungchon-Daechon was applied, and it was classified as Sochon, a sub-unit constituting the village, in that the number of settlements constituting the village in the Bronze Age was mostly less than five. There are numerical differences between Jungchon and Daechon, and the distribution pattern does not necessarily coincide with the hierarchy. The three individual residential groups of Bunto Village in Hwangsan-ri are Jungchon composed of complex communities of blood relatives with each family community, and a stabilized village landscape was created in the Gusancheon area.

In the area of Baekpo Bay, Bronze Age villages formed a landscape in which small villages were scattered around the rivers and formed a single-layered relationship. Dolmens (tombs) were formed between the villages and villages, and seem to have coexisted. Sochondeul is a family community based on agriculture, and it is believed that self-sufficient stabilized rural villages that live by acquiring various wild resources in rivers, mountains, and the sea formed a landscape.

Keywords Baekpo Bay Area, Bronze Age, Village Landscape, Village, Self-sufficient Type

Received 2023. 6. 29. | Revised 2023. 7. 31. | Accepted 2023. 8. 16.

